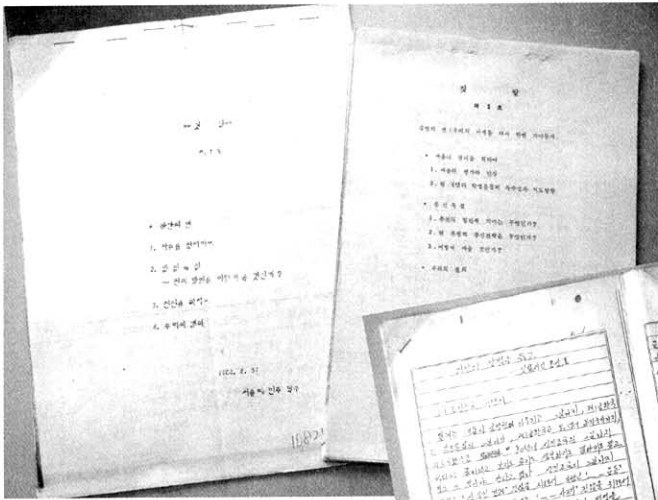


# 혹독한 고문으로 조작된 깃발 사건은 박종철 열사의 죽음마저 불리와

서명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 85년 민주위 사건의 발미가 된 '깃발 1·2호'  
▶ 정부의 왜곡·조작 의도를 고발하고 비인간적인 고문사실을 폭로한 '깃발통신 1호'

료는 역사를 밝혀주는 소중한 단서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사료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20여 년 전의 이 땅은 유신체제의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혼란을 틈타 12·12군사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신군부가 한창 폭압적인 군사독재의 칼날을 휘두르던 시대였다. 이처럼 암울했던 시대에도 보다 나은 사회를 꿈꾸며 자신을 불사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소위 '깃발' 사건으로도 불리는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사건의 주역들 역시 군사독재의

총칼에 분연히 맞서 일어났던 이들이었다.

## '깃발' 이라 불린 '민추위' 사건

'민추위' 사건이 '깃발' 사건으로 불리게 된 것은 깃발이라는 유인물이 사건의 중요한 매개체였기 때문이

역사학에서 흔히 쓰는 말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역사의 수많은 사실 중에서 역사가에 의해 선택된 '사실'로서, 역사가에 의해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어진 사실을 말한다. 아울러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 주는 자료를 사료라고도 한다. 즉, 사

다. '서울대 민주학우' 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이 유인물은 당시 대학 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런 유인물이 세간에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듬해 정부에 의해 '민추위' 사건이 발표되고 나서였다.

그럼 먼저 '깃발'이라는 유인물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 '깃발'은 1984년 8월 31일과 10월 4일 약 한 달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제작·배포되었다. '깃발'은 다음과 같이 창간의 변에서 무엇보다 '인식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었다.

우리들의 상황인식이 세계에 대한 비판적, 변혁적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인식 자체가 혁명적 사건에 의거해야 하는 것이다. 인식이란 곧 실천임을 명심하자. 올바른 학생판단은 인식적 실천을 통해서만 획득되어지는 것임을 상기하자.

- 깃발 제1호 창간의 변 중에서

이와 같이 '인식이 곧 실천'임을 강조한 '깃발'은 학생운동가들의 상황 인식을 강조하여 당시 전두환 정권의 '학원자율화정책'이 기만적인 유화정책임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향후 학생운동의 방향을 선도적인 정치투쟁과 노동자 지원연대투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깃발' 1호에서는 전두환의 방일에 즈음한 방일반대를 주장하였으며, '깃발' 2호에서는 이듬해 총선을 대비하여 총선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깃발'은 이후 '민추위'라는 이름의 학생운동 조직을 탄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학생운동권에서는 이러한 '깃발'의 논리에 동조하여 대학별로 '민추위' 또는 '민주화투쟁위원회'(민투)가 결성되었다. 또한 1984년 11월 3일에는 대학간 연대조직으로서 '전국민주화투쟁학생연합'(민투학련)이 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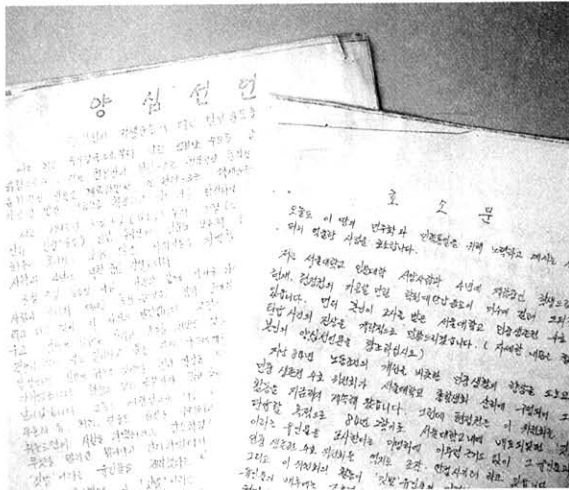
이처럼 결성된 '민추위'는 학생운동 내의 지지를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정치투쟁과 총선투쟁 그리고 민중지원투쟁이 그것이다. 이는 '깃발'에서 이미 제시한 학생운동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치하는 활동들이었다. 가령 84년의 '민정당 중앙연수원 점거투쟁'의 경우 '깃발'에서 제시한 '학생운동의 선도적인 정치투쟁'을 현실에서 구현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 정치·총선·민중지원 투쟁

한편 이러한 '민추위'의 활동은 전두환 정권으로 하여금 '노동현장의 학원화'를 우려케 했으며, 나아가 정권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인식 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부, 치안본부, 검찰청 3개 기관에 '깃발 전담반'을 설치하고 속속 '민추위' 관련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1985년 당시 서울대 외교학과 과회장이었던 김관주가 귀가하던 중에 체포되었다. 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된 그는 합법적인 경찰서나 검찰청이 아닌, 공안당국의 비밀스런 고문 장소였던 소위 서림장 여관으로 끌려왔다. 이를 계기로 민추위 사건은 시작되었다. 뒤를 이어 전총학생회장 이정우, 민중생존권수호위원회(민수위)위원장 채윤이 끌려왔다. 이들은 비합법적인 공간에서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혹독한 고문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러한 와중에 '깃발통신'이란 이름의 유인물이 대학가에 제작, 배포되었다. 공안당국에 의해 끌려갔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황인상이 제작한 것이었다. 이는 언론이 입을 다문 시대에 군부정권의 만행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깃발통신'은 정부가 어떻게 '깃발'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조작하려 하는지 낱알이 고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황인상은 자신이 서림장 여관이라는 밀실에서 받았던 비인



'깃발' 전담수사반에 의한 고문에 못 이겨 허위사실을 자백했던 김삼섭의 호소문과 양심선언

간적인 고문 사실을 다음과 같이 폭로하기도 하였다.

깃발을 썼다는 자백을 근거 없이 강요당했으며 설 새 없는 고문을 받았다.(중략) 머리채를 잡히어 질질 끌려 다닐 때의 굴욕감, 목젖을 수도로 내려칠 때의 고통, 등 뒤에서 갈비뼈만 잡고 들어올리려 했을 때 그것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기억, 수갑을 채운 채 손가락 사이사이에 불판을 끼워 넣고 비틀고 흔들고 하여 손목에 피가 흐르고, 손목 관절이 통통 부어오르던 것(중략) '내가 썼고 기자재는 XX에서 구입했고……'라고 생각 나는 대로 만들어서라도 그 고통을 벗고만 싶었지만 그럴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설 새 없이 고문했던 것(중략) 고문이 중단되고 서로 기상천외한 욕설과 농담을 지껄일 때 이 농담이라도 좀 더 길어서 몇 초라도 좀 더 쉬고 싶어 기대를 해보곤 하면서도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서 그만 눈물이 날 뻔했던 기억들……

- 깃발 사건통신Ⅱ(기만의 장벽을 뚫고) 중에서

한편 수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즉 '민추위' 계열의 학생운동조직이었던 '민족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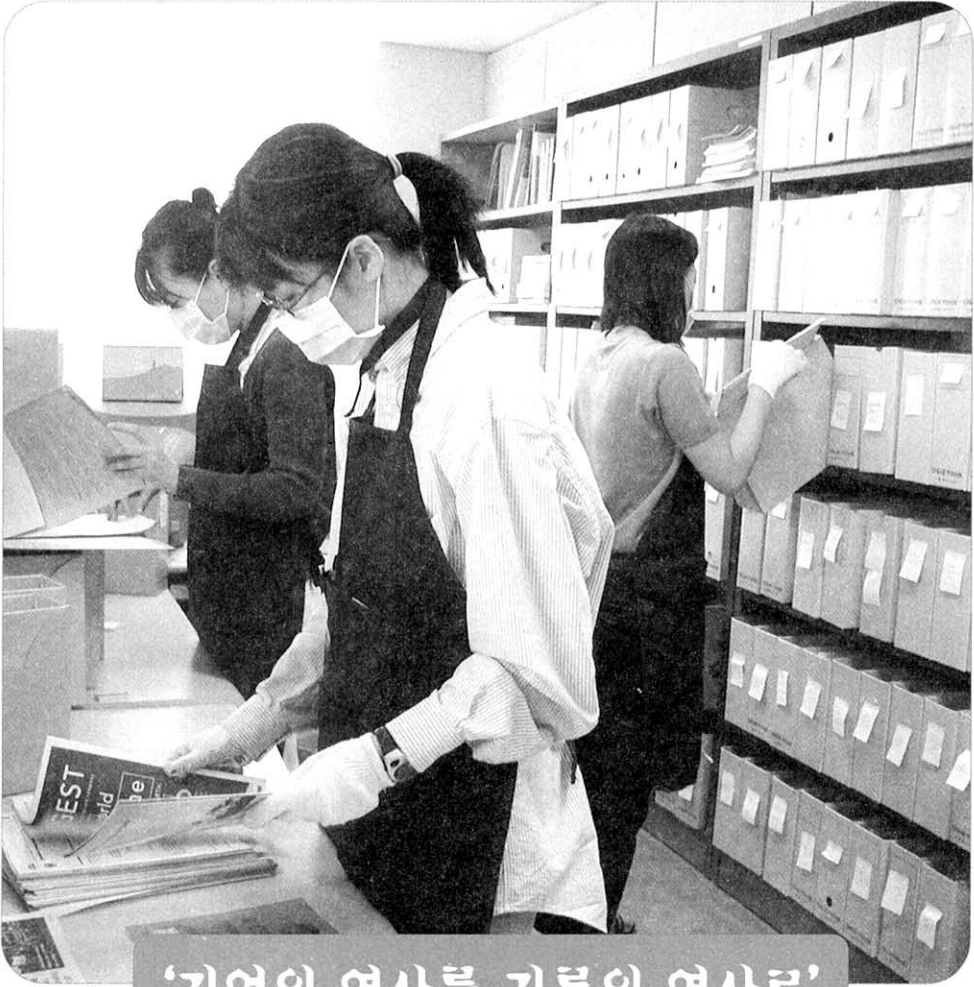
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에 대한 수사가 '민추위' 산하조직이었던 '노동문제투쟁위원회'(노투)로 이어졌으며, 노투 조직책이 잡히자 '민추위' 주요 간부가 대거 체포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8월 말 '민추위' 위원장 문용식이 체포되었다. 이와 함께 민추위 사건은 이제 배후조종인물을 밝히는 쪽으로 맞추어지게 되었다.

민추위 배후조종인물로 '민중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의 김근태 의장과 이을호 정책실장이 물망에 오르면서 사건은 극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두환 정권은 소위 '민청련' 사건을 조작하고자 했지만, 수사 과정 중 김근태 의장에 대한 고문수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정국은 또 다른 국면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와 함께 '민추위' 수사로 수배 중이던 '민추위 홍보위' 산하의 '학외유인물책'이었던 우종원이 의문사하고 말았다. 또한 박종철은 수배 중인 선배 박종운(민추위 산하 민주화투쟁위원회의 조직책)의 소재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고문으로 살해되었다. 이것이 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다.

### 군부정권의 만행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금까지 20여 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났던 '민추위' 사건을 '깃발'과 관련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20여 년 전에 태어나 현재 대학의 주인공이 된 이들에게는 상상도 못 할 일이지만 분명히 존재했었고, 일어났던 악몽과도 같았던 역사적 사실이다. 어쩌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 할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이러한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코미디로 비쳐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최소한 한번쯤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피 값으로 얻어진 것인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 ‘기억의 역사를 기록의 역사로’

### 민주화운동 자료를 수집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화운동 사료관(Archives) 및 기념관 건립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해외자료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